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私教育費 支出이 家計에 미치는
負擔 程度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趙 敏 廷

2007年 8月

私教育費 支出이 家計에 미치는 負擔 程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鄭 鎮 鉉

趙 敏 廷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趙敏廷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8月

The Study of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n Household

Jo, Min-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 Jin-Hy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0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Kim, Hang Won, Prof. of Social Studies Education

Han, Seok Ji, Prof.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ong, Jin Hyeon, Prof.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ug, 2007

Dat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조민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지도교수 정진현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인 2004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인 2004년도의 조사 데이터 중 가구용과 개인공통 자료에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한 결과 1904개의 자료가 샘플링되었고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약 28만원 정도였다.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중학교 자녀가 있는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자녀, 초등학교 자녀 순이었다.

2. 조사대상 가계의 85% 이상이 사교육기관 한 곳 이상을 이용하였고 전체의 64% 이상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3. 사교육 지출은 주부의 관계(가구주 또는 배우자), 주부연령, 주부학력, 주부의 취업여부, 주택소유형태, 입주형태,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었다.
4.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주부연령, 주부학력, 주부의 취업형태,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5.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월평균 소비로 나타났다.
6.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사교육비의 개념	4
2. 교육투자 관련 이론 검토	7
3. 선행연구의 검토	11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문제	15
2. 분석방법	15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8
IV. 결과해석 및 논의	21
1. 사교육의 지출 실태	21
2.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3. 사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V. 결론 및 제언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1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17
<표 2> 가계재정 변인	17
<표 3> 사교육 이용실태 변인	18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5> 조사대상자의 가계재정 변인 특성	20
<표 6>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	22
<표 7>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23
<표 8>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24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26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 경제적 부담 정도	29
<표 11>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2
<표 12> 사교육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4

그 림 목 차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사교육 이용 개수	22
<그림 2>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정도 ...	23
<그림 3>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25

I.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교육투자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불신,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교원들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들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의 기반이자 중심인 학교교육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교육 수요자들이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과외나 학원 교육 등의 사교육에서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에 위협을 줄만큼 크게 팽창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도는 가계의 제1순위의 중요한 문제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 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성공적 교육이 가계의 중요과업이 되고 있다¹⁾.

학교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로 그 부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고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은 2.9%로 1위였다. 반면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중은 4.6%로 17위로 나타났다²⁾.

현대경제연구원의 일반가계의 교육비 지출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평균 31.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충당 방법은 일상 생활비 76.3%, 저축 12.2%, 용자 또는 빚 8.7%,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처분 2.1% 순으로 나타났다³⁾.

1) 이승신(200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p.1.

2) 매일경제신문, 2007. 4. 13. 기사.

3) 이승신(2001), 상계논문, p.2.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사교육비의 부담은 불건전한 가치관, 계층 간의 위화감 등을 조성하여 한국교육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측면에서는 균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이 국민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교육의 차이가 대학 진학 등 학생 장래의 진로 선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사교육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공교육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학벌주의에 의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된다. 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도 있다. 가계를 안정시키고 분배 상태를 보다 평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을 발전시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⁴⁾.

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의 복지 증진이라 할 수 있으며 가계의 구성원인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계의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의 투자에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비로 가계의 소득을 무리하게 지출하고 있는 가계가 대다수임을 볼 때 사교육비의 지출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각 가정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에 대한 지출,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의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⁵⁾.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소비구조를 왜곡되게 유도하고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소비를 통한 복지의 달성은 가계의 최종 목표로서 소비는 실질적인 행위으로써의 만족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 준다.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가계가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4)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제22권 2호. p.3.

5) 이승신(2001), 전계논문, p.2.

사교육비는 가계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가계의 복지 저하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 저하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교육비와 관련된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⁶⁾.

2003년 3·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무려 38.3%가 늘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총소비 지출에 대한 구성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사교육비 구성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지출 비목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⁷⁾.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형태와 지출 비용, 가계 총소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압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인 2004년도의 자료를 프로그래밍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6)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 10권 3호. p.101

7) 통계청,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2003. 11. 24.

Ⅱ. 이론적 배경

1.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관이 공공회계절차에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공교육비라고 하면 광의에 속하는 모든 국·공·사립학교의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광의의 공교육비에 대칭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사교육비는 국·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비관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와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한다⁸⁾.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은 수업료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학용품 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학교 활동 보조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혹은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때 전자를 공교육비라 하고 후자를 사교육비라 한다. 즉, 공교육비는 학생이 내는 납입금과 같이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 회계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에 한해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거의 조세와 같은 원칙에 의해 집행된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는 경비를 말한다⁹⁾.

OECD에서는 교육비의 부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사교육비를 구분하고 있었다. OECD에서의 공교육비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공·사립 정규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경상비와 시설비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행정기관의 비용은 제

8)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pp.1-28.

9) 공은배·천세영(1989), 「한국 교육 투자 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pp.84-85.

외되고 교육부 이외의 정부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는 포함된다. 사교육비는 가계, 비영리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재원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학생납입금, 교재 구입비, 급식비, 기숙사비, 고용주 부담 직접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¹⁰⁾.

유형선은 사교육비를 정규과정 이외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서 대학입학 시험이나 학교 성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수업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생의 예술·체능·기술 그리고 취미활동을 위한 교습행위에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시켰다¹¹⁾.

통계청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만1,000원, 한집 당 교육비 지출은 한달 평균 37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¹²⁾.

사교육비 규모는 가속적으로 팽창되고 사교육비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증대되어 왔다. 1968년 GNP의 4.46%를 차지했던 사교육비의 총량 규모는 1985년 6.59%로 되었다가 1990년에는 GNP의 6.79%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1995)에 따르면 1994년 한해 동안 교육에 투자된 사교육비는 GNP의 6%인 17조 4천 6백 40억원으로 공교육비는 16조 7천 5백 78억원을 능가했으며 1990년대의 9조 4천 2백 70억원보다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외비는 5조 8천 4백 47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34%나 차지하고 있다¹³⁾.

김시월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교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과외비, 학원비 등은 중학교 자녀 월평균 14만원, 고등학교 자녀 월평균 19만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 모두를 합하여 월평균 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교육비 중 각각 82.3%, 76%, 75.7%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예체능, 교양을 위한 과외비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 모두를 합한 경우는 월평균 3만원이었으며,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6만원으로 조사되었다¹⁴⁾.

10)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9.

11) 유형선(1998),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31.

12) 이승신(2001), 전제논문, p.4.

13) 김인숙(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140.

한국교육개발원(2003)에 따르면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으며,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판단한 자녀의 성적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성적 수준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입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교육비가 가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9%에 해당한다는 반응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29%를 차지한다는 반응이 21.8%로 나타났다. 과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라는 반응이 가장 높은 반면, 교사는 “사회 풍토 때문에”라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¹⁵⁾.

보건복지부(2006)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가 한 명인 경우 평균 30만5,000원으로 나타났고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가 두 명인 경우 평균 62만3,000원, 세 명인 경우 74만9,000원으로 나타났다¹⁶⁾.

김인숙·여정성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사교육비의 월평균지출액은 11만2,470원이었다. 이 중 학습교육비가 6만7,270원, 재능교육비가 4만5,2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은 각 소득의 평균6.2%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5.9%로 나타났다¹⁷⁾.

김정훈은 1975-1981년의 소비지출구성비를 통해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유형에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의 비중은 증가되고 있으며,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유형에서 교육비의 지출구성비의 증가경향은 어느 비목보다 뚜렷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30대 초반에는 교

14) 김시월(1999), 전개논문, p.103

15)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16) 보건복지부(2006),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17)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140.

육비와 총잡비는 가장 낮았으나, 40대 가구주의 가계는 안정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교육비 및 총잡비 비중은 증가하나 기타 비목은 감소하였다. 특히 40대 초반에는 교육비 비중이 최고에 달하는 반면 식료품비, 피복비, 의료비는 최저로 나타났다¹⁸⁾.

박배진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총지출은 월평균 169만2,000원이며, 총지출에 대한 각 비목별 지출비율은 식비, 사교육비, 공교육비, 기타 잡비, 광열비, 피복비, 외식비, 교양·오락비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 계획 및 수행별 가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사교육 계획이 높은 경우에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 총지출은 늘어났으나, 식비, 공교육, 광열비, 주생활비, 기타 잡비의 비율은 낮아졌다. 사교육 계획을 잘할수록,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식비는 감소하였으며, 외식비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외식비는 증가하였다¹⁹⁾.

학교교육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각 가계가 필수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전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유치원 교육비와 학교교육으로 충족되지 않는 재능·특기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 학교성적 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각종 학원수강비와 과외교습비 등 그 지출액도 클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²⁰⁾.

2. 교육투자 관련 이론 검토

점점 높아져가는 사교육비의 지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에 대

18) 김정훈(1984),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56.

19)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개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p. 59-60

20) 공은배·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84-85.

한 이론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 선별가설, 지위경쟁이론 등이 있다. 교육 투자로 인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학력 열풍을 알아 볼 수 있다.

1) 인적자본이론

기계나 생산설비 등 물적 자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지닌 능력 및 지식·기술·경험·건강·태도 등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등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형식·형식 교육을 통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훈련·경험 및 노동유동을 통하여 획득되고 개발된다는 것이 인적자본이론의 중심이다(Minoer, 1979; 공은배 외 1985에서 재인용). 이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당연한 귀결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²¹⁾.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특성 등을 말한다.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통한 미래 기대소득과 교육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교육기간을 선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

인적자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Schultz로서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한 형태이며,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였다. Mincer와 Becker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의 차이는 노동자가 획득한 인적 자본의 양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소득이나 사회적 성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²³⁾.

21) 박미희(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학가정학회지, 제38권12호, p.191.

22) 이승신 외 3인(2003), 「가계경제분석」, 신정출판사, p.80.

23) 문숙제·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4권 4호, 재인용, pp.171-184.

Jones와 Peck은 교육수준은 개인적인 인적자본의 특징으로 보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행하는 물질적 투자의 이유는 자녀가 갖고 있는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인적자본은 미래에 자녀의 소득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녀의 미래의 경제적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여겨진다.

2)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인적자본론에 대한 반론으로 대두한 이 이론은 인적자본론에서와 같은 교육-생산성-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교육 그 자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잠재적 생산성의 수준을 알려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²⁵⁾.

모든 사회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적합한 사회적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산업화와 관료체제가 성립되어 있으며 학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력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기술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획득한 학력 자체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의식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⁶⁾.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학교 졸업자가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류학교 졸업자가 열등한 학교 졸업자보다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24) Jones, J. E. & Peck, C. J(1993), "Human Capital, Socioeconomic, and Labor Market Effects on the Wage Differential: A Case for Using Age Cohorts" , *Home Economicis Research Jouenal*, Vol.2, No.1, September, pp.3-38, 재인용.

20) 박미희(2000) , 전계논문, p.192.

26) 유형선(1998), 전계논문, pp.12-13,

선별가설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채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포화상태에 있게 된다. 교육에 대한 수요포화상태는 과잉교육열과 비정상적·비효율적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²⁷⁾.

교육의 기능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두 이론(인적자본이론, 선별가설)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지위경쟁이론(Status Seeking Tendency)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므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고자 함으로써 학력은 계속 상승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남보다 한 단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때문에 모든 사람은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신분제도가 무너져 새로운 사회선발장치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학교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지위경쟁이론은 학교제도를 둘러싼 집단 간의 경쟁, 교육기회 획득을 둘러싼 개인 간의 경쟁 등이 학교교육의 연장과 팽창을 유발시켰다는 이론이다²⁸⁾.

Weber는 학력의 팽창은 경제적 부,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 등의 희소가치에 위대한 집단 및 개인 간의 경쟁 결과라고 하였다.

Dore는 역사상 보다 늦게 근대화를 추진한 후기 개발 국가에서는 교육정도가 사회적 지위와 직업선택을 위하여 폭넓게 이용되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더욱 시험 지향적 교육으로 구조화되어 학력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을 상급학교와 일류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더욱 시험지향적인 교육구조로 이행하게 된다²⁹⁾.

우리나라의 과잉 학력화 경향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 중 어느 한 가지

27) 나영미(1999), “가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 교육열의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7.

28) 이정화(1994),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의식과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pp.21-22.

29) 나영미(1999), 전계논문, P.8,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세 가지 이론 모두를 가지고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일반적으로 자녀 수, 가족의 의식과 태도, 부모의 학력, 가구주의 직업, 성별, 소득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학년별, 학교 설립별(공립·사립), 거주지, 과외 수강 경험, 학원·과외 수강 동기(태도), 첫 자녀의 연령, 가구주 연령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³⁰⁾.

남편의 직업, 거주지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시월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직업이 고용·판매·기술직보다 경영·관리직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으며, 거주지가 성남시보다 서울시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다³¹⁾. 사교육비와 사회계층의식, 직업귀천의식, 학벌주의인식 등과는 정적관계를 보여 사회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직업귀천의식과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³²⁾. 그리고 윤성인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이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³³⁾.

정영숙은 지출변수들 중 사교육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고, 다음이 외식비, 식료품비, 공교육비, 보건의료비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⁴⁾.

사교육 이용과 사교육비의 영향 요인들 중 그 분석대상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요인은 가계소득과 부모의 학력이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중·고

30)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1호. 재인용.

31) 김시월(1999). 전계논문, p.118.

32)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에서의 지출비 -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p.169.

33)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27.

34)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연구, 제3권2호, p.207.

생을 둔 학부모 514명을 조사하여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한 정영숙(1996)의 연구,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자녀의 학부모 761명을 조사한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 1993년 대우패널자료를 분석한 문숙재 외(1996)의 연구, 인천의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생이 있는 602가구를 조사한 유형선·윤정혜(1999)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97년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미희·여정성(2000)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육이 당연재라면 사교육은 선택재라 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과의 정적인 관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³⁵⁾.

사교육비 지출 및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가구주나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남편직업, 금융자산, 자녀의 연령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윤금·양세정의 연구 결과에서는 가계의 교육비구성비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높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³⁶⁾. 그리고 박미희 연구에서도 소득이 사교육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³⁷⁾.

김인숙은 주관적 압박도는 학습교육비가 높을수록 높고 재능교육비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들이 학습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가계의 부담과 압박을 감수하지만, 재능교육을 위해서는 굳이 압박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음을 의미하며, 다수 가계가 사교육비를 객관적으로 많이 부담하면서도 그에 비해 주관적으로는 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³⁸⁾.

사교육비로 인한 전체 부담감은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으며, 재정적 문제를 가장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 액수나 오락비, 기타 잡비의 비품 삭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았다³⁹⁾.

35) 정영숙(1996), 상계논문, p.208.

36) 이윤금·양세정(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pp.81-101.

37) 박미희(2000), 전계논문, pp.189-206.

38) 김인숙(1996), 전계논문, p.141.

39)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회지, 제37권 10호, p.73.

가계 지출비목 중 교육비가 가장 경제적 부담을 주었으며 가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⁴⁰⁾.

가계의 소비지출은 각각의 소비 항목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소비지출항목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소득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타 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개별 소비항목의 욕구충족에 문제를 야기시킨다⁴¹⁾. 가계의 사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계 소득의 크기나 경제 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할애하는 경향이 사교육과 경제적 복지 수준과의 부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교육열이 가계소비지출형태에 반영되어 교육비는 가계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는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이러한 지출은 가계소비패턴을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육비가 단순히 소비·지출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상당부분이 인적자본 투자라는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⁴²⁾.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계의 제한된 소득수준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욕구충족의 절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대적 측면에서도 결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사교육비는 가계의 특성별 가계에 부담을 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의 부분인 과외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 저해, 정상적인 학교 기능의 마비, 사교육비 증대로 인한 가계 부담의 가중, 국민의 공동체 의식 와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전인교육 저해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 저해, 입시위주 교육의 만연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운영과 학교 기능의 마비,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 대학교육의 위축 및 대학생들의 황금만능주의 사상 팽배를 들 수 있고, 경제적 문제로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가정경제의 압박과 국가경제의 낭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는 사회분화 및 계층이동

40) 이동원 외 8인(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p.140.

41)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7권10호, p.69.

42) 이승신(2001), 전계논문, p.4.

의 저해,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상호불신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와해 등을 들 수 있다⁴³⁾.

이러한 사교육비가 가계의 재정만족도나 가계소비지출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되어 있으며, 결과 또한 대상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박배진의 경우는 첫 자녀가 중학생인 자녀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교육비가 재정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는 심리적인 면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재정만족도에 관련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⁴⁴⁾.



43) 김시월(1999), 전계논문, p.105.

44) 박배진(1999), 전계논문, p.70.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교육비 지출실태는 어떠한가?

1-1. 사교육비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1-2.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4.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분석방법

1) 사용변수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인 2004년도의 자료 중에서 가구용 자료와 개인공통 자료에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04년도 7차 자료 가구용 자료에서 성별이 여성이고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

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현재 고등학생이하의 자녀와 동거중이고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 결과 최종 1909개의 케이스가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개인공통 자료에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성별이 여성이고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최종 3441개의 케이스가 선택되었다.

이상으로 선별된 각각의 자료에서 공통변수를 기준으로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통합시켜 최종 1904개의 케이스를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개념 정의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각 연구마다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에서는 ‘자녀의 공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이외의 교육 또는 탁아 서비스에 드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미취학 자녀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교육비에는 탁아비, 학원수강비, 과외학습비, 학습지구독료, 유아원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 사교육 수단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서 <표 1>에서 그 구성을 보면, 관계 변인은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 또는 배우자이고, 주부연령은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4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주부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4그룹으로 나누었고, 취업형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였으며, 주택 자가 여부는 자가, 전세, 월세로 구분하였으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자녀수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은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변인	속성	설명
관계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와의 관계
주부연령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주부의 연령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형태	취업자, 미취업자	주부의 취업형태
주택	자가, 전세, 월세	주택 자가 여부
주택종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입주형태
자녀수	한명, 두명, 세명 이상	총 자녀수
자녀연령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학년(첫째기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가계재정 변인에 대한 구성<표 2>을 보면, 소득 변인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으로 산출하였으며, 자산 변인은 작년도 소유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금융자산 등을 기준으로 자산을 산출하였고, 부채 변인은 작년도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전세/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부채를 산출하였다.

<표 2> 가계재정 변인

변인	속성	설명
소득	월 평균 소득	작년 월 평균 소득
소비	월 평균 소비	작년 월 평균 소비
자산	소유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	작년 총 자산
부채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전세/보증금 등	작년 총 부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사교육 이용실태 변인에 대한 구성<표 3>을 보면, 이용개수 변인은 사교육 기관 이용개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3> 사교육 이용실태 변인

변인	속성	설명
이용개수	사교육 기관 이용개수	사교육 기관 이용개수
지출액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부담정도	사교육 경제적 부담감	사교육 경제적 부담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소비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되어왔으며, 여러 학자들이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연구해 왔다.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가족 크기 및 구성, 교육 수준, 연령, 성별 등과 같은 가계 구성 변수를 들고 있다⁴⁵⁾.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에 있어서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자녀의 연령, 가구주의 직업, 거주지, 과외비, 자녀수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계 1,904명)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부의 관계, 주부 연령, 주부 교육수준, 주부의 취업형태, 주택의 자가 여부, 입주형태, 자녀수, 자녀 연령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4>

조사대상자의 6.67%는 주부가 가구주이고, 93.33%가 가구주의 배우자로 구성되었다. 주부연령은 30세 미만 9.93%, 40세 미만 50.53%, 50세 미만 36.71%, 50세 이상 2.84%로 구성되었다. 주부학력은 중졸이하 14.35%, 고졸 53.15%, 대졸 30.65%, 대학원 이상 1.84%로 구성되었다. 주부 취업은 취업자 47.01%, 미취업자 52.99%로 구성되었다. 주택 자가 여부는 자가 57.66%, 전세 32.26%, 월세 10.07% 구성되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23.00%, 아파트 57.99%, 연립주택

45) 정영숙(1993),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46)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8.51%, 다세대주택 10.50% 구성되었다. 자녀수는 한 명 38.81%, 두 명 53.99%, 세 명 이상 7.20% 구성되었다. 자녀의 연령은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미취학 41.96%, 초등학생 26.79%, 중학생 14.13%, 고등학생 17.12% 구성되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
관계	가구주	127	6.67
	배우자	1777	93.33
주부연령	30세 미만	189	9.93
	40세 미만	962	50.53
	50세 미만	699	36.71
	50세 이상	54	2.84
학력	중졸 이하	273	14.35
	고졸	1,011	53.15
	대졸	583	30.65
	대학원 이상	35	1.84
취업형태	취업자	895	47.01
	미취업자	1009	52.99
자가 여부	자가	1,042	57.66
	전세	583	32.26
	월세	182	10.07
입주형태	단독주택	416	23.00
	아파트	1,049	57.99
	연립주택	154	8.51
	다세대주택	190	10.50
자녀수	한 명	739	38.81
	두 명	1,028	53.99
	세 명 이상	137	7.20
자녀연령	미취학	799	41.96
	초등학생	510	26.79
	중학생	269	14.13
	고등학생	326	17.1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주 : 인용된 수치는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였고, 분석된 수치는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계재정 변인 특성 <표 5>을 보면 월평균 소득은 269만9,100원이고, 월평균 소비는 192만2,200원, 자산은 5,765만3,900원, 부채는 4,984만5,800원을 보였다. 2000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월평균 소득은 181만5,400원, 월평균 소비는 158만2,700원, 자산은 2,369만5,800원이고 부채는 3,599만2,900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0년도에 비해 2004년에는 월평균 소득은 88만3,700원이 증가하였고 월평균 소비는 33만9,500원이 증가하였다⁴⁷⁾.

<표 5> 조사대상자의 가계재정 변인 특성

(단위: 만원)

변인	평균	표준편차
월소득	269.91	191.03
월소비	192.22	95.21
총자산	5765.39	13498.22
총부채	4984.58	7261.9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47) 이승신(2001), 전계논문, p.5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사교육비 지출 실태

1) 사교육 이용실태

조사대상 가계의 사교육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기관 이용개수, 월 평균 사교육 지출액,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 <표 6>를 살펴보면, 사교육기관 이용개수는 이용 안함 14.12%, 한 곳 54.02%, 두 곳 29.22%, 세 곳 이상 2.63%로 나타나 전체의 85.88%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14.12%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제적 부담 정도를 보면 매우 부담된다 25.08%, 약간 부담된다 39.88%, 보통이다 24.03%,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1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89%로 나타나 전체의 64.96%가 사교육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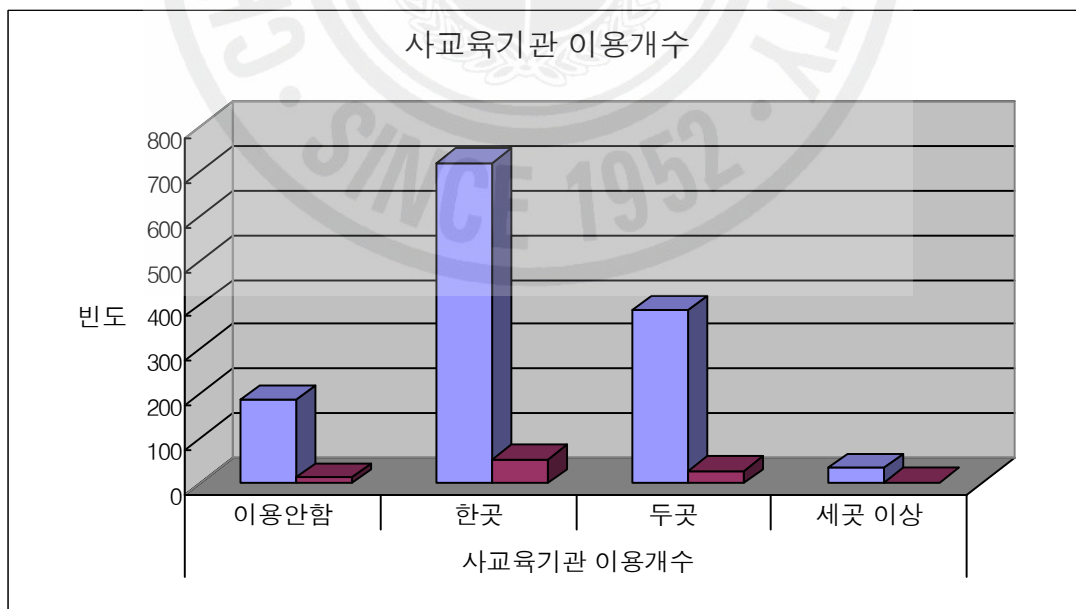
사교육의 일부인 과외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의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별 차이를 나타내 “부담이 된다” 또는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수입이 감소할 경우 그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48) 김시월(1999), 전계논문,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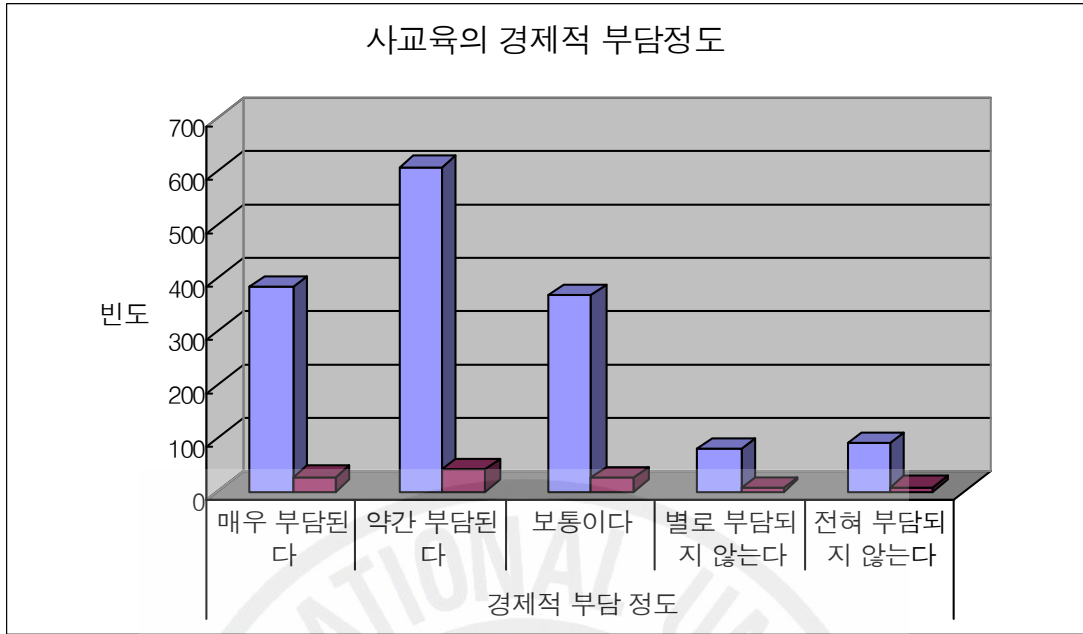
<표 6>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

변인	구분	빈도(N)	%
사교육기관 이용개수	이용안함	188	14.12
	한 곳	719	54.02
	두 곳	389	29.22
	세 곳 이상	35	2.63
경제적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383	25.08
	약간 부담된다	609	39.88
	보통이다	367	24.03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78	5.1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90	5.8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 - 사교육 이용개수



<그림 2> 조사대상자의 사교육 이용실태 -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정도

<표 7>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단위: 만원)

변인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28.03	30.8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표 7>은 평균 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승신, 2001)에서 나타난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14만9,273원보다 13만원 가량 증가했다.

2)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평균을 보면 중학생 41.39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34.52만원, 초등학생 32.42만원, 취학전 18.0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이었으며 이에 대한 자

녀 연령별 결과를 보면 중학생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16%, 고등학생 14%, 취학전 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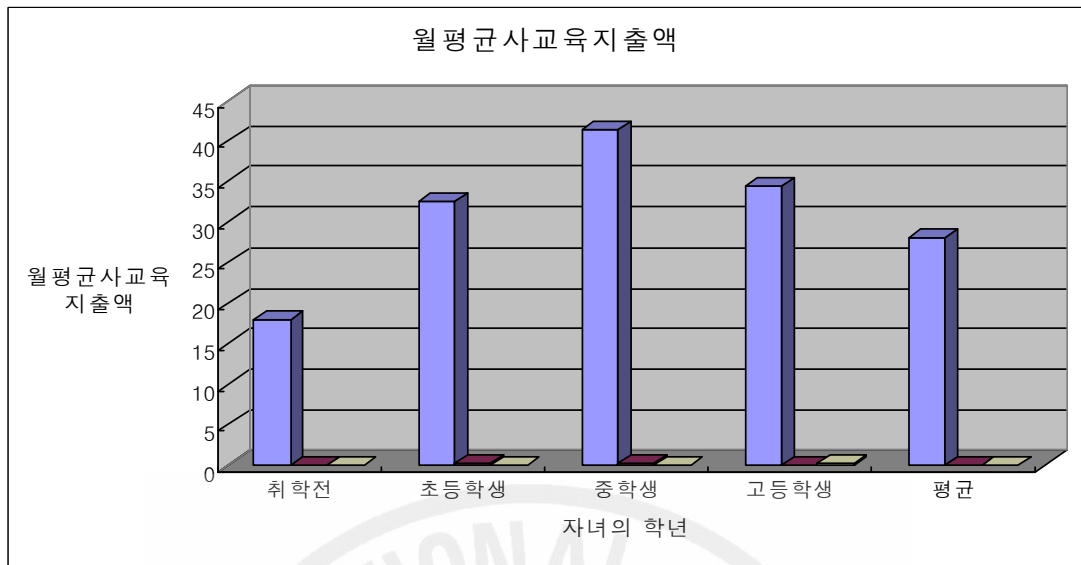
월 평균 소득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이었으며 이에 대한 자녀 연령별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11%, 초등학생 9%, 취학전 8% 순으로 나타났다.

김시월(1999)의 연구, 이승신(2002)의 연구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살펴보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연령보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서의 사교육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입입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부터 자녀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중학생 자녀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

구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평균(만원)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월 평균 소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월 평균 소득
취학전	18.03	0.08	0.08
초등학생	32.42	0.16	0.09
중학생	41.39	0.19	0.11
고등학생	34.52	0.14	0.16
평균	28.03	0.13	0.1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그림 3>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 월평균총소득을 보면 전체적으로 12%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중학생(11%), 고등학생(16%)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사교육비 지출이 11만2,470원이며 이는 소득의 6.2%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1997)에서는 월평균사교육비는 소득의 8.9%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교총과 서울대 공동 조사에서는 가계 지출의 16.5%가 사교육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나왔다⁴⁹⁾.

2.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표 9>은 관계 변인에서 주부가 가구주인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4만 7,100원, 주부가 배우자인 경우 월 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28만 9,800원으로 주부가 배우자인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7.55, p<.001$).

49) 김인숙·여정성(1996), 전제논문, p.143.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관계	가구주	14.71	19.61	-7.55***
	배우자	28.98	31.23	
주부연령	30세 미만	7.75	12.20	45.41***
	40세 미만	26.56	24.94	
	50세 미만	35.74	36.69	
	50세 이상	23.80	46.65	
학력	중졸이하	14.92	19.82	25.83***
	고졸	27.96	25.87	
	대졸	33.59	39.39	
	대학원 이상	41.15	37.58	
취업형태	취업자	29.61	28.44	2.13*
	미취업자	26.62	32.70	
자가 여부	자가	33.85	34.04	38.35***
	전세	23.26	26.35	
	월세	16.58	19.77	
입주형태	단독주택	21.05	25.68	19.48***
	아파트	32.86	33.07	
	연립주택	27.36	34.60	
	다세대주택	20.62	22.11	
자녀수	한명	17.16	25.63	83.53***
	두명	34.25	30.16	
	세명이상	39.80	41.92	
자녀연령	미취학	18.03	26.31	57.90***
	초등학생	32.42	25.34	
	중학생	41.39	34.11	
	고등학생	34.52	37.6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주 : *p<.05, ***p<.001

주부연령 변인에서 주부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35만 7,4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세 이상은 23만 8,000원, 40세 미만은 26만 5,600원, 30세 미만은 7만 7,5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45.41, p<.001$).

주부학력 변인에서 주부학력이 대학원 이상은 41만 1,5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33만 5,900원, 고졸은 27만 9,600원, 중졸 이하는 14만 9,2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5.83, p<.001$).

취업형태 변인에서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9만 6,100원, 주부가 미취업자인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6만 6,200원으로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13, p<.05$).

주택 자가 여부 변인에서 자가 주택인 경우 33만 8,5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주택인 경우 23만 2,600원, 월세주택인 경우 16만 5,8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38.35, p<.001$).

주택 종류 변인에서 아파트인 경우 32만 8,6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립주택인 경우 27만 3,600원, 단독주택 21만 500원, 다세대주택 20만 6,2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9.48, p<.001$).

자녀수 변인에서 자녀수가 세 명 이상인 경우 39만 8,0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명인 경우 34만 2,500원, 한명인 경우 17만 1,6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83.53, p<.001$).

자녀연령 변인에서 첫째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 41만 3,9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 34만 5,200원, 초등학생 32만 4,200원, 미취학은 18만 3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57.90, p<.00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본 결과, 주부의 가구내에서의 관계, 주부연령, 주부학력, 취업형태, 주택 자가 여부, 주택 종류, 자녀수 및 자녀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가 배우자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주택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많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학력이 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특기교육 차원에서의 사교육이 아닌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나 학원비가 보다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표 10>에 따르면 관계 변인에서 주부가 가구주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3.74점, 주부가 배우자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3.73점으로 주부가 가구주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부연령 변인에서 주부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3.86점, 50세 이상은 3.75점, 40세 미만은 3.73점이고, 30세 미만은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8.57, p<.001$).

주부학력 변인에서 주부학력이 고졸은 3.84점으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는 3.64점, 대졸은 3.57점, 대학원 이상은 3.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7.39, p<.001$).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
관계	가구주	3.74	1.14	0.09
	배우자	3.73	1.07	
주부연령	30세 미만	3.02	1.29	18.57***
	40세 미만	3.73	1.01	
	50세 미만	3.86	1.07	
	50세 이상	3.75	1.16	
학력	중졸이하	3.64	1.24	7.39***
	고졸	3.84	1.04	
	대졸	3.57	1.04	
	대학원 이상	3.50	1.22	
취업형태	취업자	3.82	1.03	3.16**
	미취업자	3.65	1.11	
자가 여부	자가	3.76	1.03	0.98
	전세	3.70	1.09	
	월세	3.84	1.18	
입주형태	단독주택	3.76	1.17	0.85
	아파트	3.71	1.04	
	연립주택	3.83	0.95	
	다세대주택	3.82	1.07	
자녀수	한 명	3.39	1.20	41.68***
	두 명	3.85	0.97	
	세 명이상	4.16	0.93	
자녀연령	미취학	3.40	1.21	30.13***
	초등학생	3.84	0.83	
	중학생	4.07	0.92	
	고등학생	3.90	1.1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주 : ** p<.01, *** p<.001 , 경제적부담도 : 5>4>3>2>1

취업형태 변인에서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3.82 점, 주부가 미취업자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3.65점으로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사교육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16, p<.01$).

주택 자가 여부 변인에서 자가 주택인 경우 3.76점, 전세주택인 경우 3.70점, 월세주택인 경우 3.84점으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월세주택인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택 종류 변인에서 아파트인 경우 3.71점, 연립주택인 경우 3.83점, 단독주택 3.76점, 다세대주택 3.82점으로 아파트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녀수 변인에서 자녀수가 세 명 이상인 경우 4.16점으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명인 경우 3.85점, 한명인 경우 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1.68, p<.001$).

자녀연령 변인에서 첫째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 4.07점으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 3.90점, 초등학생 3.84점, 미취학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30.13, p<.00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월 평균 사교육 지출액을 본 결과 주부연령, 주부학력, 취업형태, 자녀수 및 자녀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년은 대체로 높아지므로 중,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높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고소득의 직업을 갖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학력이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1995년, 1996년의 대우패널자료를 분석한 박기백의 연구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을 이용하

는 자녀가 많으면 가계의 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수는 많을지언정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가 적다면 자녀수가 많더라도 가계의 총 사교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⁵⁰⁾.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정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과 사교육비 지출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가계보다 비취업주부의 가계에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박미희·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녀가 딸인 경우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점차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은 교육이 계급사회를 고착화시키고 불평등을 재생산해 낸다는 우려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다⁵¹⁾.

3.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표 11>와 같다.

50)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제13집1호, pp.150-155.

51) 김지경(2003),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p.3.

<표 11>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	β	표준화 β	T
가구주	-0.027	-0.022	-0.68
주부연령	0.132	0.107	2.49*
중졸이하	-0.143	-0.105	-1.50
고졸	0.005	0.005	0.05
대졸	0.019	0.018	0.18
취업자	-0.121	-0.109	-3.28**
취학전	-0.220	-0.195	-3.46***
초등학생	-0.088	-0.082	-1.65
중학생	-0.042	-0.040	-0.98
자가	-0.009	-0.008	-0.13
전세	0.009	0.008	0.13
단독주택	-0.074	-0.065	-1.17
아파트	-0.021	-0.018	-0.30
연립주택	0.023	0.020	0.45
자녀수	0.132	0.110	2.80**
이용개수	-0.024	-0.022	-0.63
월평균소비	0.643	0.628	13.59***
월평균소득	-0.127	-0.134	-3.39***
자산	-0.084	-0.083	-1.97*
부채	0.183	0.180	4.31***
F	28.25***		
R^2	0.555		
adjust R^2	0.53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주 : ** p<.01, *** p<.001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부연령,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첫째 자녀가 취학하기 전, 자녀수, 월평균 소비, 월평균 소득, 자산, 부채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표준화 $\beta=.107$, $t=2.49$, $p<.05$),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낮게 나타났다(표준화 $\beta=-.109$, $t=-3.28$, $p<.01$). 첫째 자녀가 취학전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표준화 $\beta=-.195$, $t=-3.46$, $p<.001$),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높게 나타났다(표준화 $\beta=.110$, $t=2.80$, $p<.01$). 월평균 소비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표준화 $\beta=.628$, $t=13.59$, $p<.001$),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준화 $\beta=-.134$, $t=-1.97$, $p<.001$), 자산이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표준화 $\beta=-.083$, $p<.05$), 부채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준화 $\beta=.180$, $t=4.31$, $p<.001$).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 평균 소비가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부가 취업자이고, 첫째 자녀가 취학전이고,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특히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소비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가 많으면 그 소비 중 일부를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므로 월평균 소비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많아진다.

2) 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수	β	표준화 β	T
가구주	0.021	0.023	0.51
주부연령	0.088	0.093	1.60
중졸이하	-0.066	-0.063	-0.67
고졸	0.064	0.076	0.53
대졸	-0.043	-0.053	-0.39
취업자	0.045	0.053	1.17
취학전	-0.008	-0.009	-0.12
초등학생	0.022	0.026	0.40
중학생	0.022	0.027	0.50
자가	-0.013	-0.015	-0.18
전세	0.030	0.035	0.43
단독주택	0.023	0.026	0.35
아파트	0.026	0.029	0.36
연립주택	0.052	0.059	1.01
자녀수	0.134	0.147	2.76**
이용개수	-0.027	-0.032	-0.68
월평균소비	-0.008	-0.010	-0.14
월평균소득	-0.125	-0.173	-3.21**
사교육비	0.274	0.354	5.58***
자산	-0.026	-0.033	-0.59
부채	-0.055	-0.070	-1.23
F	5.65***		
R^2	0.210		
adjust R^2	0.17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주 : ** p<.01, *** p<.001

사교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녀수, 월평균 소득,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표준화 $\beta=.147$, $t=2.76$, $p<.01$),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준화 $\beta=-.173$, $t=-3.21$, $p<.01$). 월평균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준화 $\beta=.354$, $t=5.58$, $p<.001$). 특히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외·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75%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과외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출혈을 감수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부담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과외나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계 중에는 그 비용 조달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계가 9%가 되며, 이런 부업 주부 가운데는 과출부(7%)도 있다(서울YMCA, 1991)⁵²).

52) 김인숙·여정성(1996), 전계논문, pp.140-14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사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하여 사교육비의 지출 형태와 지출비용을 분석하였다. 가계의 총소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분석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정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교육의 이용 실태로는 전체의 85.88%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14.12%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계에서 한군데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28만 300원으로 이는 월평균 소비의 1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또한 전체의 64.96%가 사교육 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 중고등학생일 경우 취학 전의 경우보다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월평균 사교육 지출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부의 관계(가구주 또는 배우자), 주부 연령, 주부 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주택소유형태, 입주형태,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주부가 배우자인 경우는 주부가 가구주인 경우보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높게 나타났고, 주부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높게 나타났다.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가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되었다.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다른 주택 형태에 사는 경우보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많았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른 경우보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주부연령, 주부학력, 취업형태, 자녀수 및 자녀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결

과를 나타냈다. 주부 연령에 따라 연령이 높을수록 부담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주부 학력이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부가 취업자인 경우 또한 부담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담 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학력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담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소비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많아졌다.

여섯째,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는 증가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인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사교육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졌다. 좀 더 나아가 경제적 부담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공은배·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립(1997), “마산·창원지역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세화(2004), “여성교육과 가계경제수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0권 3호
-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 김연경·이기춘(1996),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 김 옥(1998),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 옥(199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1996),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1호.
- 김정훈(1984),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한국노동패널 5차 조사.
- 김지경(2003),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 김현진(2003),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나영미(1999), “가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의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연구, 제13집 1호.
-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학가정학회지, 제14권 1호.
-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 박영희(2000), “인문계 고등학생의 과외수업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서혜경(2004),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머니의 자녀교육 관심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태희(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 양정호(2004),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유정순(1997), 「사교육비 지출에 가구특성이 미치는 영향: 복지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7집.
- 유형선(1998),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권 3호.
- 이동원의(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 이성림(2001),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 제40권 9호.
- 이윤금·양세정(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 이승신(200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이정화(1994),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의식과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영숙(1993),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제3권 2호.
- 최영순(1999), 「한국 가계의 사교육비 : 1982-1997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8권 1호.
-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에서의 지출비 -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 교육인적자원부(2000), 「사교육비 실태조사」, 2001. 3.
- 매일경제신문, 2007. 4. 13.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제4차 공청회 자료집.

<Abstract>

The Study of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n Household

Jo, Min Jeo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eong, Jin-Hyeon

This research used the data that conducted by Labor in Korea "the 7th Korean Labor Panel". The data was for the household that had the children under high school including high school. It was to analyz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al fee and what factors influence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lso this analyzed financial burden on home economy by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t is to provide basic data with regard to home financial burden due to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al fee in household that had the children under high school including high school student.

The sample was 1,904 households from the panel data and analyze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gressive analysis by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

1. The mean of monthly private educational fee was around 280,000 won for all households. The mean of monthly private educational fee was the highest in the households with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next is the households with high school students.

2. Almost 85% households used private institute at least one. More than 64% households had economic burden for private educational fee.

3.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al fee depended on wife's relationship in the household, wife's age, wife's education, wife's employment, house type, number of children, the children's age.

4. The level of economic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depended on wife's age, wife's education, wife's employment, house type, number of children, the children's age.

5. The most influencing factor for the amount of monthly private educational fee was the amount of monthly consumption.

6. The most influencing factor for the level of economic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was the amount of monthly private educational fee.